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 증시 하락..나스닥 조정 구간 진입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나스닥 -2.38%, 다우 -1.01%
- 중동 전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 급등
- OECD “전쟁발 인플레이션”..미국 물가 전망 상향

Summary

3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 마감. 특히 기술주 낙폭이 컸으며 이 날 하락으로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1% 하락한 45,9602.1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74% 하락한 6,477.16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8% 하락한 21,408.08로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1.70% 하락한 2,493.32에 마감.

이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조속히 진지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 시점이 오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며 상황은 절대 좋지 않게 전개될 것”이라 경고. 이 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에 대한 마지막 일격을 위해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상군 투입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전에서 지휘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해군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발표.

한편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휴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해 성공을 위한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그는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협상 계획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양 측의 상대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 이에 국제유가는 재차 5% 내외 상승했으며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지속과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나아가 금리 인상 전망이 더해지며 미 국채금리는 급등. 2년물 금리는 장 중 4%를 넘어서기도 했음.

정규장 마감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짜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 보류 시한을 4월 6일 까지로 열흘 연장한다고 밝혀. 이 소식에 미국 시간 외 선물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달러 약세가 진행되기도. 다만 양측에서 나오는 발언에 일관성이 없으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시각을 반영해 움직임은 제한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물가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음. OECD는 중동 전쟁이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동시에 흔들어 글로벌 경제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음. OECD는 올해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존 2.8%에서 4%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4.2%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구글이 AI모델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압축 기술 ‘터보 쿼트’를 최근 공개한 점이 전일 시장에서 부각된 가운데 이를 차익 실현의 빌미로 삼은 반도체주 약세도 시장 전반에 약세 압력을 더했음.

(다우 -1.01%, 나스닥 -2.38%, S&P500 -1.74%, 러셀2000 -1.70%)

특징종목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에 힘입어 유일하게 선방했을 뿐 대부분 업종이 하락. 특히 통신서비스와 기술 섹터 낙폭이 컸음.

메타 플랫폼스(-7.96%)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3.06%)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배심원 판결에서 유죄 및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동반 하락. 플랫폼 기업들이 방패로 삼아왔던 이른바 면책특권이 이번 판결로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기술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평가.

이외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를 견인. 구글이 최근 AI 모델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압축 기술 ‘터보 쿼트’를 공개한 점이 부각. 이 기술은 AI모델이 이전 계산값을 저장하는 ‘키-값 캐시’를 효율적으로 압축해 반복 연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이에 전일 한국과 미국, 일본 메모리 반도체 주요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 내외 하락했으며, 일본 키옥시아 역시 6% 가까이 하락.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97%)와 샌디스크(-11.02%)도 전일 대비 낙폭 확대. 반도체 업종 전반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짙어 밸류 체인 내 주요 종목 일제히 약세. 엔비디아(-4.16%), 브로드컴(-2.95%), AMD(-7.49%), 인텔(-6.53%), 램 리서치(-9.3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8.34%), 웨스턴 디지털(-7.7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날 4.79% 하락.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매슈 프린스 CEO는 ‘터보 쿼트’에 대해 ‘구글판 딥시크’라 평하며 AI 효율성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세미 애널리시스의 레이 왕 분석가는 “병목을 해결하면 하드웨어 성능이 개선되고 더 강력한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수요를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다만 IBM(+0.12%)과 에이전트 기반 보안 운영 센터 혁신 촉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1.75%)를 비롯해 팰로앨토 네트웍스(+2.05%), 포티넷(+2.71%), 세일스포스(+2.02%), 인튜이티브(+1.33%), 어도비(+1.53%), 서비스나우(+0.56%)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는 다만 최근의 약세 분위기를 뒤로 하고 반등.

금리 상승에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 경기 위축 전망에 구리 가격도 하락. 전반적 금속 가격 약세와 맞물려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7.03%), 배릭 마이닝(-3.82%), 쿼크 마이닝(-9.36%), 헤클라 마이닝(-6.37%), 뉴몬트(-2.31%), 프리포트 맥모란(-2.21%) 등 금과 은 관련주, 이외 금속 관련 광산주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국제유가 상승에 엑슨 모빌(+1.33%), 셰브론(+1.29%), 코노코 필립스(+3.35%), EOG 리소시스(+2.99%), 옥시덴탈 페트로리엄(+4.06%) 등 에너지 기업 주가는 상승.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글로벌(-4.26%), 스트래티지(-4.46%) 등 관련주 주가도 약세. 다만 마라 홀딩스(+3.62%)는 약 1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10억 달러어치 부채를 재매입하는 등 부채 감축과 사업 구조 재조정에 본격 착수한 점을 재료로 상승.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사 유니티 소프트웨어(-3.76%)는 마감 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 이 기대를 상회했으며 현재 진행 분기 가이드선도 기대 이상으로 제시.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등.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연초 이후 주가가 60% 이상 하락한 상태.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는 중동 갈등이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 속에 일제히 상승. 2년물 금리는 장 중 4%를 넘기도 했으며 10bp 이상 상승한 3.985%에 마감. 10년물 금리는 8bp 상승한 4.411%를 기록, 30년물도 3.2bp 상승한 4.932%에 마감.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강세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DXY)는 100에 육박. 0.32% 상승한 99.922를 기록. 달러/엔 환율은 160엔대 저항을 받으며 159.75엔대에 머물렀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하루동안 4% 이상, 브렌트유가 5% 이상 급등했으며 난방유는 6% 이상 급등해 에너지 공급망 관련 불안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반영함. 금값은 4% 가까이 하락했으며 은값은 6% 이상 하락해 온스당 70달러를 하회. 구리 가격도 1.51% 하락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 우려를 반영함.

MSCI 한국지수 ETF는 6.07% 하락했으며 코스피 200 야간선물은 3.15% 하락.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